

조선/기계 김 현

02. 6098-6699 / hyun.kim@meritz.co.kr

**국내 주요 조선/기계 업체 Valuation**

업체명	시가총액 (십억원)	외국인지분율 (%)	종가 (원)	1D	1M	3M	YTD	PER(x)		PBR(x)		ROE (%)	
				(%)	(%)	(%)	(%)	18E	19E	18E	19E	18E	19E
현대중공업	8,334.4	18.0	120,500	-0.8	-18.3	-10.2	25.6	84.0	40.3	0.6	0.6	0.7	1.4
현대로보티스	6,726.4	21.8	413,000	0.5	-1.0	-8.4	8.4	5.6	4.6	0.7	0.6	14.1	14.7
현대알렉트릭	891.0	6.1	87,300	0.0	14.3	-24.4	-23.4	8.3	7.2	0.7	0.7	9.3	9.7
현대건설/기계	1,807.4	8.3	183,000	-1.1	6.1	-5.9	8.3	11.6	8.6	1.3	1.1	11.7	13.9
삼성중공업	3,380.7	16.3	7,530	0.0	-6.1	-7.1	16.4	47.5	23.6	0.5	0.5	1.0	1.9
대우조선해양	2,792.7	4.4	26,050	-3.0	-7.6	33.6	87.4	9.6	11.5	0.8	0.8	9.0	6.8
현대미포조선	1,712.0	10.2	85,600	-3.4	-18.9	-20.4	8.8	18.5	13.3	0.7	0.6	3.6	4.8
한진중공업	347.3	6.7	3,275	-0.9	4.8	-10.4	-1.1	65.9	16.4	0.5	0.5	0.7	2.8
현대엘리베이터	2,626.0	25.4	98,100	-4.8	28.6	73.0	80.3	17.3	16.9	24	21	14.6	13.3
두산밥캣	3,228.0	26.8	32,200	-0.3	1.9	-9.7	-10.1	11.8	11.1	0.9	0.9	7.4	7.6
현대로템	1,695.8	25.6	19,950	7.8	32.1	18.4	6.4	25.7	17.5	1.1	1.1	4.5	6.3
하이록코리아	349.9	48.6	25,700	6.2	14.5	-0.2	14.2	11.6	10.6	1.0	0.9	8.8	9.0
성광밴드	348.9	16.7	12,200	-1.2	6.6	2.1	22.2	1,078.5	43.7	0.8	0.8	0.1	1.8
태광	360.4	12.7	13,600	-0.7	11.9	-5.9	12.9	81.2	39.7	0.8	0.8	1.0	2.1
두산중공업	1,809.9	10.7	17,000	0.6	13.3	6.9	10.7	14.5	10.8	0.6	0.6	4.1	5.1
두산인프라코어	1,933.7	12.7	9,290	-1.0	1.4	-15.9	6.9	7.9	7.0	1.0	0.9	13.1	13.4
두산엔진	413.5	3.5	5,950	0.2	6.3	40.0	61.5	-82.0	59.8	0.8	0.8	-0.9	1.3
한국항공우주산업	4,269.4	16.1	43,800	-3.1	-10.9	-18.1	-7.7	34.1	23.6	3.4	3.1	10.0	13.3
한화테크윈	1,325.5	12.5	25,200	-3.8	-13.3	-24.6	-29.1	27.0	16.0	0.6	0.6	2.2	3.6
LIG넥스원	933.9	10.4	42,450	-2.2	-13.2	-22.0	-29.0	17.3	12.1	1.4	1.3	8.6	11.4
태웅	378.1	4.0	18,900	0.5	2.4	-18.9	-2.3	N/A	N/A	N/A	N/A	N/A	N/A
동성화인텍	184.3	5.3	6,830	-5.8	-13.9	-3.0	35.2	-50.2	71.9	22	21	-4.3	3.1
한국카본	259.4	14.1	5,900	-2.2	-6.5	-14.2	10.1	49.0	264	0.8	0.8	1.7	3.1

주: 커버리지 업체 PER/PBR/ROE는 메리츠증권증권 추정치, 그 외 업체는 Bloomberg 컨센서스 수치 / 자료: Bloomberg,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

**주요 지표 및 차트****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****FEED time on Barossa**

오일메이저 ConocoPhillips의 호주 북부에서 진행될 Barossa FPSO 프로젝트가 지난달 당국의 승인을 받았고, 조만간 FEED 계약자가 선정될 수 있다고 알려짐. 또 프로젝트의 FID(최종투자결정)는 2019년 말을 목표한다고 알려짐. Barossa 프로젝트는 FPSO 1기와 기타 subsea 장비가 이용될 계획임. (Upstream)

**Emission cuts to drive shipbuilding resurgence**

Affinity Shipping에 따르면 IMO의 탄소배출량 50% 감축 계획은 단기 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을 수 있으나, 신조선 시장에는 밸류를 불러올 수 있다고 전망 함. 조선소는 LNG추진엔진이나 스크러버를 제공해 이익을 남길 수 있고, 노후선은 상업성이 낮아져 신조 수요를 촉진할 수 있다고 예상함. (TradeWinds)

**스크러버는 특효약 아니다**

환경규제에 대응해 스크러버를 장착하는 대용은 주류가 되기 어렵다고 알려짐. 스크러버 장착은 리드타임이 7~9개월 소요될 수 있고, 시장점유율 30%를 차지 한 Wartsila도 작년 70~80대의 스크러버를 장착함. 반면 전세계 운항선박은 6 만척으로, 대부분 선사는 저유황유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. (선박뉴스)

**Subsea 7 makes \$2bn offer for McDermott**

노르웨이에 상장된 Subsea 7은 미국 EPC업체 McDermott의 지분 100%에 대해 20억달러를 제안했다고 알려짐. McDermott의 현 주가는 6.05달러인 반면, Subsea 7의 매수가는 주당 7달러로 16%의 프리미엄이 부여됨. 합병이 추진된다면, 합병된 회사는 해양 EPCI 전문업체로 탄생할 전망임. (TradeWinds)

**Cheniere seeks funding for third LNG train**

미국 Cheniere Energy는 Corpus Christi LNG 액화시설에서 추가설비에 대한 FID가 올해 상반기에 계획됐다고 알려짐. Corpus에는 2기의 train이 건설 중이며, 추가 1기의 투자가 계획됨. 각 train의 생산능력은 연간 450만톤으로, 1기가 추가로 건설되면 최대 1,350만톤을 생산할 계획으로 알려짐. (Upstream)

**장금·고려·천경해운, 국내 조선사에 선박 발주 추진**

해양수산부와 업계에 따르면, 장금상선, 고려해운, 천경해운은 해양수산부로부터 노후선박의 폐선보조금 43억원을 지급받을 예정임. 이를 통해 장금상선은 현대 미포조선에 1,800TEU급 컨테이너선을, 고려해운과 천경해운은 대선조선에 각각 700TEU급 컨테이너선 발주를 추진 중으로 알려짐. (EBN)